**마0508 Note**

**◆**Cross check : 시2403-4

시2403. 누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랴? 아니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서 서있으랴?

시2404. 깨끗한 손들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니라, 그는 그의 혼을 공허함에로 높이지도, 거짓으로 맹세하지도 않았느니라.

**◆ 이정표 :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BOB JONES AND KEITH DAVIS

성경은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말한다.

"눈"은 마음, 양심 혹은 이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분명히 눈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게 된다.

눈의 청결 정도에 따라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양이 결정된다.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 진리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 눈과 양심이 맑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 온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몸은 어둠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히1022.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뿌려진 우리의 마음들과, 순수한(불순물 없는) 물로 씻겨진 우리의 몸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된 (알레디노스: 진실한, 참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 양심에 간사함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발을 견고케 하시는 등불이 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밝아질 때 우리는 "좁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말씀의 물로 씻겨진다.

**빛의 자녀들 - BOB JONES AND KEITH DAVIS**

빛을 막는 장애물들로부터 자유하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

우리의 사랑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험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행해진 죄를 용서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상처준 자들을 포용해야만 할 때이다.

깊이 뿌리내린 분노의식은 하나님의 빛을 왜곡시키는 또다른 큰 장애물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꺼이 포용해야만 한다.

단지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포용해야만 한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발생한 상황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로 있다면,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왜곡시키는 무기를 적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고 (렘 29:11)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 주님의 길과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들을 세우시도록 허락할 때 명백히 드러난다.

시험, 실패,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자주 허락된다. 또한 주님의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예비한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싫어하셨을지라도 십자가를 껴안으셨다. 우리도 이와같이 주님을 본 받아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 곤경과 광야의 시련의 수치를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한 유익을 포용해야만 한다.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성숙케 하여 이 세대를 높은 소명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싫어하셨지만 그 수치가 가져다 줄 유익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나가셨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가장 치욕스런 사형수단인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셨다.

우리도 담대한 확신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죄의식(죄책감)은 위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는 또다른 장애물이다.

이기는 자는, 통회하는 회개를 통해 죄를 십자가로 들고나가면, 죄는 더 이상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신실한 회개를 한 후 하나님의 자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불법에 대한 죄의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흐름과 선한 양심이 제 역할을 하는데 방해만 할 것이다.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죄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댓가가 우리의 죄와 불법, 악을 위해서 지불되었다. 죄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자의 엄청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한 인간에게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셨다.

교회사의 가장 큰 핍박자중 한 사람이 가장 큰 사도가 되었다. 그런 용서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우리 눈이나 양심이 청결할 때, 우리는 그 청결 정도에 따라 천국의 계시를 보게 될 것이다.더러운 양심은 천국의 환상과 지상을 향한 주님의 순결한 목적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은 자신의 청결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들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것이다.

시1825. 인자한(하씨드:인자한,경건한,선한,자비로운,성도) 자에게 당신께서는 인자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며, 똑바른 자에게 당신께서는 똑바른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니이다.

시1826. 순전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순전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며,  
완고한(성질이 뒤틀린) 자에게는 당신께서 완고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니이다.

주님은 우리 손의 깨끗함을 따라 보상을 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를려면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고 더럽히는 우리의 길을 떠나 주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죄의식, 분노, 자기비하를 고집하는 것은 빛의 왜곡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될 때 성경에 기록된 선하고 값진 약속들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